



### 중국, 제지업계 양극화 심화 중소업체 생존 위협

중국 상해와 심천 증시에 상장된 제지업체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 제지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설비를 갖춘 대규모의 업체들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중소 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Shandong Chenming이 2003년에 이어 2004년 1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기록, 뒤를 이어 Shandong Huatai 또한 꾸준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업체는 여전히 비목재 펄프를 원료로 하는

소규모의 구형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익은 대부분 신규투자로 이루어진 고품질 생산시설을 통해 얻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고품질 지류에 대한 수요는 향후 몇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담배용지를 생산하는 Minfeng Special Paper와 Mudanjiang Hengfeng Paper 양사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이뤄진 신증설과 세계 최대 흡연국가인 중국 내수시장의 영향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담배용지 생산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독과점 성격을 띄고 있는 관계로 양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대규모 업체의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Jiangxi Paper는 3년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5월 중순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됐으며,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2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Jilin Paper 또한 중국 증시 규정에 따라 2005년에 위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Ilin Paper는 2002년 재정문제로 2기의 신문용지 시설 가동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Zhongzhu Paper가 Jilin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예비 계약을 체결했지만, 조사 결과 엄청난 규모의 부채가 드러난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도 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중국정부가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로 밝힘에 따라, Jilin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은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지업계, 2003년 경영실적 개선**  
안정된 수요, 재고 수준 유지

일본 주요 제지업체들의 2003년 실적이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업계의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 계획의 결실이 나타난 것 뿐만 아니라, 안정된 수요로 인해 적절한 가격 및 재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강세로 인해

목재칩과 같은 원재료 비용이 낮아진 것도 주요인으로 차지했다.

Nippon Unipac이 2002년 대비 2.3% 상승한 1조1천9백30억엔으로 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운영이익은 10.4% 상승한 5백60억엔을 달성했다.

순이익 또한 2백40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4백%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Nippon Unipac 관계자들이 올해 전망했던 수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2위 제지업체인 왕자제지도 매출액 1조1천8백억엔, 순익 3백10억엔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이는 자사의 기존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해 볼 때, Nippon Unipac은 올해 매출액 1조1천9백50억엔, 순익 2백80억엔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왕자제지는 매출액 1조2천억엔, 순익 5백억엔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제지연합회 미요시 신임회장 취임**  
업계 관심 집중

일본제지연합회는 미요시 타카히코(三好孝彦) 현 일본제지 사장을 일본제지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10대 회장으로 선출된 미요시씨는 현재 65세로 동경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후 1961년 일본제지의 전신인 十條제지에 입사, 기획본부장, 영업관리본부장, 양지영업본부장, 정보용지영업본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거치면서 96년 상무, 98년



전무에 임명된 후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장을 수행하고 있다.

전 오키나(大國)회장과 10살 가까이 차이나는 신임 미요시 회장이 앞으로 일본제지연합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일본제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中, 식품 라벨 표시 규정 강화**  
장기 보존식품, 기한 명시 않아도 무방

내년 10월부터 중국내 식품생산업체에 적용되는 라벨표시 규정이 강화된다.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최근 '식품포장라벨통칙(預包裝食品標籤通則)' 과 '특수음식식품포장 라벨통칙((預包裝特殊膳食食品標籤通則)' 을 공포하고 오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포장 라벨에는 식품의 명칭, 원료 명세서, 순중량, 고형물 함량, 제조자 명칭 및 주소, 생산일(또는 포장일), 보존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특히, 포장 라벨에 단순히 '방부제(또는 감미료) 첨부' 등의 표기를 해서는 안되며 안식향산나트륨 또는 사카린 등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풀어써야 한다.

이같은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은 제품의 명칭을 이용해 그 속성을 속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량검역총국 관계자는 전했다.

예를 들어 오렌지 과즙을 함유한 제품은 라벨

에 '오렌지 과즙음료(橙汁汽水)' 라고 표기할 수 있지만 단순히 향료나 색소를 넣어 만든 것이라면 '오렌지맛 음료(橙味汽水)' 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보존이 가능한 포장 식품이나 주정 10% 이상의 주류, 식초, 식염 등은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관계자는 "식품생산업체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 않고 내년 9월말까지 1년 6개월 간의 과도기를 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라벨통칙의 관련 규정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게 통보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시행에 앞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日, 제지업체 중국 공장이전 활로 모색**  
오지페이퍼 등 투자계획 밝혀

내수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 제지업체들이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일본의 주요 제지업체들은 일본내 수요 부진과 전세계적인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등 중국시장 진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국민총생산(GDP) 신장에 따라 종이 소비량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7년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업체들의 종이 생산량이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



정했다.

지난해 일본 최대 제지업체인 오지페이퍼는 중국 상하이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천억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연간 50만톤 이상 생산능력을 갖추고 오는 2006년부터 코팅지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지페이퍼는 지난해 일본내 수요는 4백40만톤(1인당 2백50kg)선으로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2년 중국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은 33.3kg에 그쳤지만 수요가 매년 7~9%씩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사는 해외 수요 증가를 감안, 오는 2007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2백만톤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UPM사도 2007년까지 연간 90만톤 수준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일본, 왕자제지 건재용 골판지 상자 개발  
골판지 폐지 재활용 가능**

일본의 왕자제지그룹이 최근 재생 가능한 건재용 골판지 상자를 개발했다.

종래에는 습기의 흡입으로 목재제품이 변형하지 않도록 필름을 부착한 상자가 사용됐으나 금번 개발된 '건재용 방습 골판지'는 필름이 필요치 않게 만들어져 골판지 폐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

왕자제지의 자회사인 왕자켄테이어가 제품화한 건재용 방습 골판지는 원료인 표면에 습기가 통하지 않는 효과가 있는 광물인 운모를 얇게 코팅하는 등 관련 특허 5건을 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재용 방습 골판지는 사용 후 즉각 폐기가 용이하고 기존의 방습형 골판지에 비해 10% 정도 낮은 가격대의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주조 건재 회사 등에 판매되고 있다.

**파키스탄, 인쇄·포장산업 8% 성장  
전시회 개최 등 기술교류 활발**

파키스탄의 인쇄 및 포장산업이 전년대비 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의 인쇄·포장산업은 식품 및 농업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65%, 약 50%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주요산업으로 최근의 내수경기 활성화와 수출증가로 인해 이 산업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동산업의 발전과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Food Tech, Plastic Printing & Packaging Pakistan 2004 등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은 시중자금이 비교적 풍부하고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향후 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베트남, 플라스틱 가격 상승 2002년 대비 2배 상승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베트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완제품 가격을 5%에서 15%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은 톤당 9백달러로 지난 2002년 대비 2배 상승, 작년 평균 가격보다 38%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시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업체인 Long Thanh Plastic사의 사장인 Pham Van Muoi에 따르면, 이 회사는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톤당 8백달러일 때 미국과 수출계약을 2건 체결했으나, 이후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 미국 바이어에게 수입가격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현재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플라스틱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현재 바이어(고객)들은 구입물량을 줄이고 있으며, 당장 필요한 물량이 아니면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

호치민시에 소재한 Minh Thanh Plastic사의 Nguyen Thi Minh Huyen 사장도 자사의 캄보디아 수출물량이 70%나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Ms Huyen 사장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인상을 이유로 자신들의 제품 가격을 계속 인상시킨다면,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업계의 어려움을 수용해 금년 4월 27일 베트남 공업부는 재경부로 수입 플라스틱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플라스틱 원자재인 PVC-E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이 전혀 없으며, PVC-S의 경우 2%에서 5% 정도 수준으로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당국은 PVC에 대한 관세인하가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guyen Dang Cuong 베트남 플라스틱 협회 부사장과 같은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플라스틱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플라스틱 원자재의 국내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플라스틱 원자재 수요량은 연간 90만톤 정도이며, TPC Vina, Phu My Plastic Chemical Company, LG Chemical Co.,Ltd 를 포함한 국내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은 연간 15만톤 정도이다.

베트남은 향후 5개의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며 이 중 두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3개는 Nghi An성의 Nghi Son에 PS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남부지역에 PS 생산공장 1개와, Dung Quat 산업공단에 PE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베트남 플라스틱 협회 부사장은 이와 같은 플라스틱 생산설비 건설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